

돼지 계열화

추세와 네트워킹 구축

1. 계열화의 발전 과정

추 산업이 산업화 되어감에 따라 사육규모의 증가와 생산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종축, 사료, 도축가공, 유통판매 등 독립된 관련 기능들이 밀접한 유대 관계가 형성된다. 이러한 관계로 관련 업계는 과잉·과소 생산의 위험 부담의 분산과 경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생산자를 고객으로 하는 연계사업을 시작하였고, 이것이 계열화의 시작으로 본다. 축산업이 소비자 지향적 산업으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소비시장의 제품 안정성과 품질에 대한 요구 등 시장 변동상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더욱 절실함에 따라 종축, 사양관리, 사료, 도축가공, 유통 판매를 통합 체계로 하는 경영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계열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60년대 육계산업은 이미 통합 계열 체계로 전환됐으며, 양돈산업의 경우 대형 양돈기업화와 스미스필드사 (도축 73,000두/일)같은 거대 자본력에 의한 양돈 계열 기업화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2. 목우촌의 양돈 계열화 사업 현황

목우촌은 95년 육가공 공장 개장 전인 94년부터 양돈 계열농가 조성에 착수했다. 95년 136농가 조성에 총 모돈 10,579두 규모로 농장당 평균 모돈 규모는 77.7두 이었던 것이 98년 296호 농가에 총 모돈 37,293두로 농가당 평균 모돈규모는 125.9두로 규모화 되어 있다.

농장 조성현황을 보면 <표1>과 같다.

<표1> 농장조성현황

구 분	농장수	총모돈수	농장평균 모돈수	비 고
1995년	136	10,579	77.7	
1996년	205	20,936	102.1	
1997년	227	23,965	105.5	
1998년	296	37,293	125.9	



하 병 국 공장장
(목우촌 김제육가공장)

현재 국내의 농가당 평균사육 규모를 300두로 볼 때 목우촌 계열농장의 경우 1,300두 규모의 전업 양돈농가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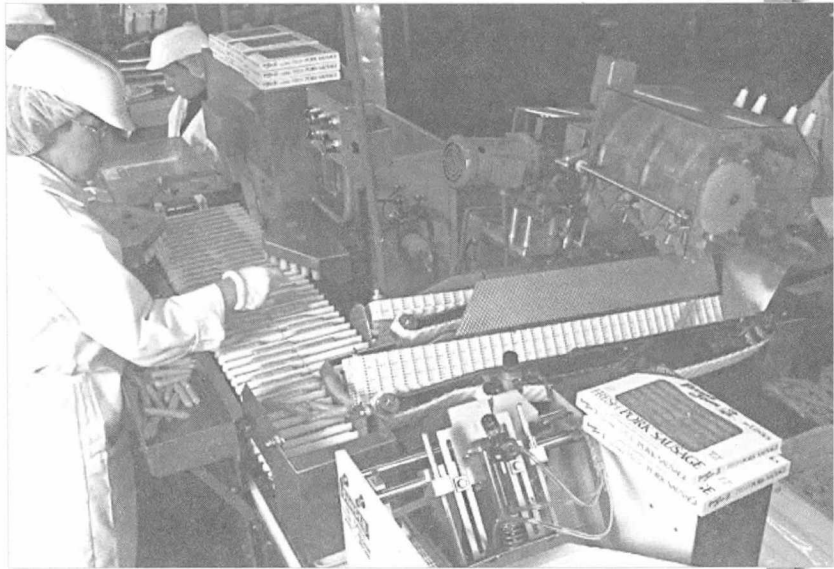
계열화에 있어서 농장규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부 가족 노동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를 현대 양돈 시설로 모든 200두 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업을 양돈 전업농 규모의 농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농장이 양돈을 주 사업으로 해야 하고, 주 사업일 때에 계열주체와 긴밀한 유대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등급별 정산제도를 택하고 있는 목우촌에서는 부업농의 경우 계속 거래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고품질 규격 출하를 유지하기 어렵고, 출하가 빈번하지 못함으로 산지 가격에 따라 중간상인이나 중소기업체에 문전 거래를 해버리기 때문이며 기업의식이나 사업개념



이 크게 부족하다.

목우촌의 계열사업 체계를 표시해 보면 다음 <그림1>과 같다.

3. 네트워킹 구축

계열화의 성공 여부는 정보 전달 시스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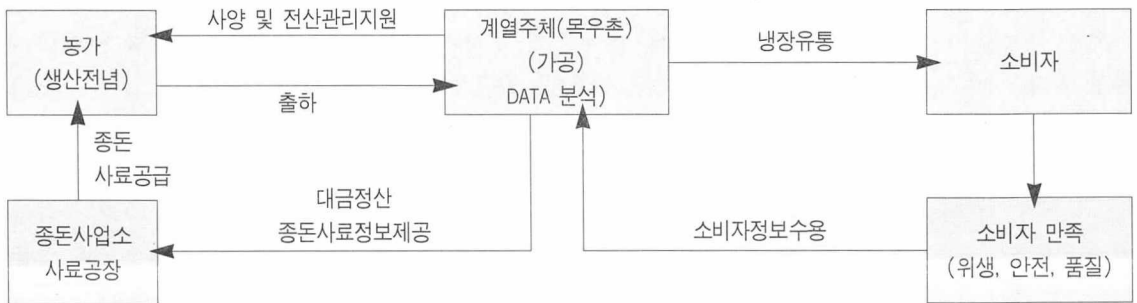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째 요건은 규모화된 농장

계열사업이 먼저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60년대 육계산업은 이미 통합 계열 체계로 전환했으며, 양돈산업의 경우 대형 양돈기업화와 스미스필드사 (도축 73,000두/일)같은 거대 자본력에 의한 양돈 계열 기업화로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집단이 존재해야 하고, 둘째 계열주체의 시스템 구축 노력과 상호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나라 축산농가의 성향

<그림1> 목우촌의 계열사업 체계도



컴퓨터에서 농장 팩스로 직접 전송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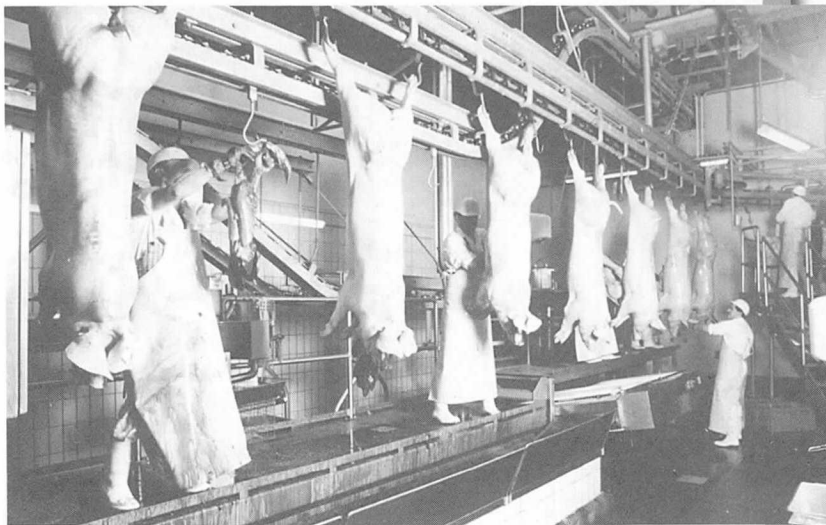
4. 2천년대 양돈산업의 방향

인구 5백만에 돼지 사육두수 총 1천여 만두인 덴마크나 거대 자본에 의한 기업중심의 미국 등 양돈 산업의 핵심에는 도축 가공 조합이나 기업이 양돈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목우촌 계열사업 체계도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정보는 도축 가공 업계로 집결될 수 밖에 없다. 농장별 사료 급여, 종돈에 따른 육질, 육색, 지방, PSE 현상과 도축 과정에서의 농장별 질병 소견, 또 해외 및 국내 소비시장으로 부터의 시장정보까지 모든 정보의 망라가 가능하다.

여기에 각 농장별 사양관리 전산체계가 접목될 경우 생산자에서부터 소비자까지 상호 만족이 가능한 발전 체계의 성립이 가능할 것이다.

농장이 필요로 하고 있는 정보는 비교 분석이 가능한 자기 농장에 관한 정보이다. 아무리 보수적인 농장주라 해도 비교 분석이 가능한 자기 농장에 관한 정보는 곧 돈을 벌 수 있는 방법과 연관되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개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국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 할 때 양돈 산업의 계열화와 네트워크 구축은 중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이제 도축 가공 업계는 불특정 다수 농가로부터 돼지를 구매하는 방법보다 생산자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가능한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 구축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도드람중부양돈 축협이나 부산경남양돈 축협 등 양돈정보 DATA BASE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미래를

인구 5백만에 돼지 사육두수 총 1천여 만두인 덴마크나 거대 자본에 의한 기업중심의 미국 등 양돈 산업의 핵심에는 도축가공 조합이나 기업이 양돈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대비하는 조직이 많아져 기본 환경이 갖추어져 갈 때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는 국가적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제언하며, 경쟁력 있는 축산산업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개장 4년차인 목우촌과 목우촌 계열농장은 새롭고 다양한 노력을 계속 해나감으로서 양돈계열사업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단히 노력해 한국 양돈산업의 비전을 제시해 나갈 것이다. **양돈**